

2018년 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12월 결실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愛加倍·Агапэ

추수감사절
성례예배와 만찬
감사나무

연재 -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들
이길함 (Graham Lee) 선교사

KAPCQ 's Got Talent – Sports Star

제 57기 전도 폭발 수료예배

성탄 축하 찬양제
왕이 오셨다 왕을 전하자



결실의 달 특집
감사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
교회 각 위원회의 결실

2018.12

www.kapcq.org



믿음의 세계

2019년 제직수련회

1월 11일(금) - 13일(주)

첫째 날, 1월 11일 (금) 저녁 8시

믿음의 본질

둘째 날, 1월 12일 (토) 새벽 6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1월 12일 (토) 저녁 8시

믿음의 방향

셋째 날, 1월 13일 (주) 1, 2부 예배

아나돗의 밭을 사라

1월 13일 (주) 3, 4부 예배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1월 13일 (주) 오후 4시

믿음의 크기



강사: 김영길 목사

한국신학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Fuller 대학원 졸업(M.Div)
서울 기독대학교 졸업(Ph.D)
감사한인교회(LA) 개척(1983)
감사한인교회 은퇴, 원로목사(2018-)
감사선교재단(TMF) 대표(한)

퀸즈장로교회 KAPCQ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
김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ik Kim

월간 아가페

제417호 2018년 12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4347 FAX (718) 886-5555

놀라운 기적은 여기에

크리스마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의 땅,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심은 놀라운 사랑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임태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심도 놀라운 능력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 기적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예수님의 구원 선물은 놀라운 은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 12월을 주목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 가득 차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Here's an Amazing Miracle

Christmas is a miracle.

Jesus' coming is a miracle.

It is an amazing miracle of love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to the land of sin through a shabby stable.

The birth of Jesus is a miracle.

It is an amazing miracle of power that He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through the virgin body.

Jesus' gift is a miracle.

It is an amazing miracle of grace that Jesus, who came into this world, gave us the gift of salvation.

Do you want to see an amazing miracle?

Take notice this December.

Amazing miracles are plentiful here

And amazing miracles will continue in your life.

《这里有惊人的奇迹》

圣诞节是一个奇迹。

耶稣的降临是一个奇迹。

上帝的儿子来到罪恶之地，降生在简陋马槽中，是震撼人心奇异的爱。

耶稣的诞生是一个奇迹。

因圣灵感孕，为童贞女所生，是有惊人能力的奇迹。

耶稣的礼物是一个奇迹。

把救恩的礼物带到这个世界的耶稣是有恩典的奇迹。

想要看惊人的奇迹吗？

那请注目12月吧！

惊人的奇迹充满在这里。

每一个人的生活里将会出现源源不断的奇迹！

Удивительное чудо, здесь

Рождество- это чудо.

Сын Божий пришел на грешную землю, родился в грязном хлеву- это удивительное чудо любви

Рождество Иисуса- это чудо.

Зачатый от Святого Духа, рожденный от девы Марии - это удивительное чудо силы.

Подарок Иисуса- это чудо.

Иисус пришел на эту землю и дал нам подарок спасения - это удивительное чудо благодати.

Вы хотите увидеть удивительное чудо?

Посмотрите на весь декабрь.

Он весь наполнен удивительными чудесами.

И эти чудеса будут в вашей жизни, продолжаться.



아 가 페

제417호
2018.12

송년의 밤/송구영신 예배
2018년 12월 31일(월)
관장 송년의 밤
오후 10:00 친교실
송구영신예배
오후 11:00에 본당.
* 예배 후에 축복 성구를
나누어 드립니다.

신년 하례 예배
2019년 1월 1일(화) 오전 11:00
성찬 예식과 축복 씨앗 현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 예배 후 떡국 잔치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2019년 1월 2일(수) ~5일(토)

2019년 제직수련회
2019년 1월 11일(금) ~13일(주)
장사: 김영길 목사
주제: 믿음의 본질

Ainos 기초반 모집
토, 주일반
(바이올린,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문의: 박미언 집사, 최효진 권사

국악 난타반 초등, 중등부
주일반
문의: 허영미 권사, 길정애 집사

2	신양시론 놀라운 기적은 여기에	김성국 목사
5	교역자 에세이 다함 없는 결실	이소영 전도사
6	송이꿀 같은 말씀 말세를 만난 우리	편집부
8	2018년 11,12월 담임목사 설교요약	편집부
9	이달의 추천도서 성령 : The Holy Spirit / 그 청년 바보 의사	김경구 권사/편집부
10	결실의 달 1 우리가 뿌린 씨앗, 주님이 맺어주신 열매 교인들의 협조로 맺은 큰 열매 청년들의 비전에 동참 자발적 헌신과 적극적인 참여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가는 선교위원회 차세대 비전의 결실 '평생교육', 들어 보셨습니까?	송동률 장로 남형욱 장로 정해성 집사 정성호 장로 이정훈 집사 편집부 편집부 김영화 교우
12	추수감사절 골판지 간증 주님 뜻 찾으며 살기로 했어요	김홍덕 권사
14	성례주일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Anna Song
15	유아세례간증 세 아이를 품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임지홍 집사
16	결실의 달 2 감사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God has greatly blessed me 또 감사, 더 감사, 다 감사 I can call God My father 노력이 기쁨으로 돌아온 순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온 가족 성경읽기 축복의 통로가 될 자녀임신	Anna Shim 강이율 송현림 집사 Chen Ming Jian Cui Qing Bin
19	제 8기 제자훈련 수료예배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수료생 간증 -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삶	송미진 집사
20	감사나무 화보 하나님 감사해요	
22	장학생선발 KAPCQ's Got Talent - Sports Star 임경순 집사/ Sophia Kim/ Andrew So / Noah Lattimore / Sung Eun Sul	
24	교회학교 추수감사절 -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	
26	제 57기 전도폭발 수료예배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폭발 손정호 집사/Neva 청년/Chen Jing Jing/최성호 집사	
29	유년부 주기도문 암송대회 개구장이 예성이의 주기도문 외우기	박한나 교우
30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들 이길함 선교사	최성은 집사
33	성탄찬양제 크리스마스 찬양제를 준비하며 왕이 오셨다 왕을 전하자	최진식 전도사/최경희 집사/소유영 전도사/강혜영 집사 편집부
35	송년모임 킹스콰이어 블레싱콰이어 갓즈월 여호수아	편집부
36	11월 새가족 안내	편집부
38	10월 새가족 안내	편집부

다함 없는 결실



이소영 전도사

한 장, 한 장 찢겨져 나간 11장의 달력이 어느덧 사라지고 1장만이 외로이 남아 하루하루를 손꼽으며 2018년의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달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면 찢겨져 나간 달력은 한낱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추억과 의미는 참으로 아름다운 날들이었으며,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속해 있는 유치부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에 따라 새가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유치부에 있었던터라 정들었던 곳을 떠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귀염동이 유치부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밀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눈을 반짝이며 듣는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또한 열심과 사랑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의 헤어짐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걸음, 걸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인생길에 아쉬움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처음에 유치부에 들어 갔을 때는 교사의 자격이였지만, 1년 동안 교사로 섬긴 후 하나님의 은혜로 인턴전도사와 담당 전도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말 안듣는 부분에서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해는 하고 있는지? 믿음이 정말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미처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의 열매를 빨리 보고 싶었던 저의 모습이 더 조급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아닌 저의 내면의 열매를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저에게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표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기쁨의 섬김을 주셨습니다. 모난 성격의 저를 공동체를 통하여 화평하는 마음, 성격이 다소 급했던 저에게 더디게 따라오는 아이들을 기다려줄 줄 알게 하셨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더해도 더해도 다함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긴 자매인데 열매의 결실이 안나타난다면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의 결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서의 열매를 먼저 원하십니다. 먼저 내 안에 주령주령 열려있는 좋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 글을 쓰다보니 새롭게 시작하는 새가족 부에서 어떻게 섬기며 나가야 할지를 알겠습니다.

열매의 결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분, 한 분 예수님께 오시는 분들을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좋은 자양분을 나누어 줄 때, 열매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이시니 그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볼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며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는 아무런 결실 없는 빈 손이라고 아쉬워하십니까?

조용히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안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요?

모든 분과 화평하려 힘쓰시고 계시는지요?

상대방에게 오래참아 주시고 계시는지요?

남을 배려하는 자비와 착한 마음씨는요?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됨은요?

참으시는 온유함과 세상의 유혹에서부터의 절제함은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맺고 계시다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더 더 값진 열매의 결실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손 가득 차고 넘치는 결실만을 바라보며 기卑도 하고 슬퍼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는 다함이 없는 성령의 열매로 기卑하고 또 기卑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2018년12월 16일 주일설교

고린도전서 10:11-13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는 말세, 마지막 시간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1. 읽어보라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미련하게 삽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더 미련함이 있습니다. 이 미련함이 깨우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치기 위해 본보기가 될 과거의 일들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전 10: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문 앞에는 몇 가지 본보기 내용이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전 10: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10:8)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으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전 10:9)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전 10: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광야에서 연속해서 범한 죄의 목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죄를 연이어 지었습니까? 그들은 악의 즐거움을 크게 보았지 악이 가져오는 멸망을 쉽게 잊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전 10:6)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의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만 보았지 그 뒤에 숨겨진 멸망의 갈고리를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고기는 기억력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 바늘 끝에 있는 미끼에 계속 입질하다가 결국 낚



다. 내 자신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크게 넘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단 4: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단 4: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께서 떠났느니라

(단 4:32)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단 4:33)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은 내가 잘나서 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다가 망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희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고전 10:5)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내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별별 떠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겐 두 방향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등진 방향입니다. 빛을 등지면 그림자만 보입니다. 실상이 아닌 허상 거기에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다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한 병사는 교회에 들어가 감사기도를 드리자고 했고 한 병사는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후, 술마시자고 한 병사는 알콜중독으로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 깜짝놀랐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전쟁 후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가다 교회에 가자고 했던 전우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즉 어느 방향(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일생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세에 두 가지 줄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줄밖에 잡을 것 이 없습니다.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나의 줄을 잡을 것 입니까, 하나님의 줄을 잡을 것입니까?

마지막에 나를 조심하십시오. 말세에 나의 줄을 잡았다간 다 망칩니다.

3. 신뢰하라

오늘 본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는 이 말세에 많은 시험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 2: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탄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피할 길입니다.

말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4일 주일설교

(요한복음 15:1-8)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친밀한 관계요 렐레이션 수 없는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1. 열매 맺는 삶

포도밭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

하는 작은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작은 피곤함, 분주함, 산만함, 교만함 들은 예수님이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매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확실히 비워 놓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분명한 우선 순위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2. 응답받는 삶

기도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약속, 주

어진 방법들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3. 제자 되는 삶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교회는 제자의 길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인을 넘어 무리를 넘어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삶, 응답받는 삶, 제자 되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2018년 11월 11일 주일 설교

(고린도전서 15:8-13)



온전한 것, 부분적인 것

권력에 중요한 특징은 부분적이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1. 열매와 은사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사는 필요하나 사람마다 다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누구에게나 영원히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정의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 정의와 용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정의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2. 어른과 아이

다윗 때에 나발은 자기 일을 볼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졌습니다.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지만 고민, 생각, 말, 행동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나발은 어린아이 같이 미련한 부분적인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성숙한 여인, 장성한 여인,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

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3. 그때와 지금

지금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야 온전해집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그 날이 오면 처음과 끝이 다 보입니다. 끝이 다 안 보여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받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매, 어른, 그 때는 온전하고 은사, 아이,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온전한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2018년 12월 2일 주일 설교

(출애굽기 34:1-35)



여호와의 짹

짧은 식물의 어린 줄기를 말하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여호와의 짹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 짹

그 땅은 매우 비참한 땅입니다. 깨어진 가정, 허물어진 사회를 보여주고 다툼과 절망과 고통과 실의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에 유일한 소망은 그 땅에 여호와의 짹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심겨진

여호와의 짹이 아름다운과 영광스런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짹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꼭 안으십시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헨델처럼 영접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복과 함께 큰 열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2. 훌럼

여호와의 짹이 피를 흘려 그 더러운 죄를 씻습니다. 여호와의 짹, 여린 순이신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죄인들을 씻어주시고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피를 흘린 여호와의 짹,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

서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3. 만듬

여호와의 짹은 초막을 만듭니다. 그곳을 예배의 자리 피난의 자리로 만듭니다. 여호와의 짹이 만드는 초막은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짹이 만든 초막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여호와의 짹이 만든 초막은 예수님께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야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짹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짹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을 송축합니다.

담임목사 추천도서

성령 : The Holy Spirit

저자/역자: 싱클레어 퍼거슨/김재성

출판사: lvp

출판일: 2013

부가정보: 331 페이지

분야: 성령

원서명: The Holy Spirit: 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

요셉도서관 김경구 권사

2018년 마지막을 보내며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원장 성도들에게 추천하시는 책은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의 '성령'이다.



성령은 누구이며 그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과연 성령의 사역은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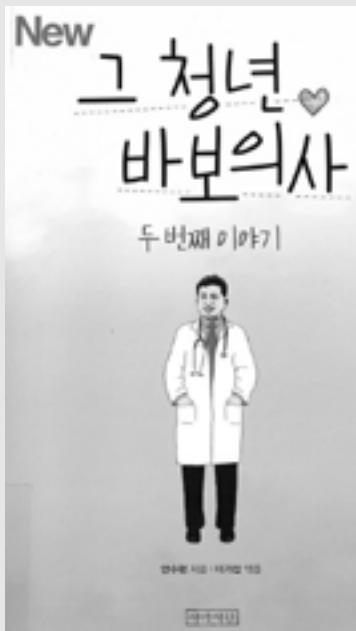
저자는 성령의 사역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나지 않는 양상, 즉 무명인 채로 남아 있다고 단언하면서 창조의 구속 사역에 기반을 둔, 성령에 대한 새로운 균형잡힌 인식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명쾌한 논리로 과거와 현대의 다양하고 정통적인 성령론을 살펴 근본적인 논쟁점과 고찰을 보여주므로 우리로 성령을 올바로 알고 그분과 더욱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교통함으로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는데 이르게 한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지음, 이기섭 역음

예수 닦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던 청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 하였지만 예배하는 시간 만은 절대 태협하지 않았던 청년 안수현! 책의 첫장부터 남다른 시작이었고 그의 마지막도 남달랐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남은 기록의 시작이다. 클래식 음악에도, 성악에도, CCM에도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내과 전문의 안수현. 환자들을 돌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청년 안수현! 1972년 태어나고 2006년 33세의 나이로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청년 안수현. 유급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며 찬양팀을 이끌며 섬기는 사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청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심한 섬김의 모습을 잊지 않고 나누던 그의 모습을 보며 그 청년 바보 의사 두번째 이야기까지 끝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이 읽어 내려갔다. 먹먹한 가슴, 때론 눈물을 쏟게 만드는 스토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닦기 원하는 청년과 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와 함께하시는 주님은 물론 그가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였음을 발견하며,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 순간 당신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작은 자에게도 성심을 다하는 그의 신실한 모습을 두권의 책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감동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뿌린 씨앗, 주님이 맺어주신 열매

청년선교 위원회 청년들의 비전에 동참

남형욱 장로



2018년 한해를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

했습니다.

교회안에서 늘 가까이 보던 청년들이였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참으로 큰 한해였습니다.

금요일이면 '불금(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세상은 유혹 하지만, 직장에서 피곤한 몸을 끌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모처럼의 여름 휴가 기간을 캄보디아등 여러 선교지를 향해 눈물과 땀으로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며…

교회의 어려운 일과 힘든 일에도 부르면 "네"하고 순종하고 달려오는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감사가 넘친 한해였습니다

은퇴의 시점에 선교라는 또 다른 시작으로 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주신 정성호 목사님, 남들보다 더 적게 자고, 더 열심히 일한 청선 임원과 리더들, 무엇보다 청년의 일이라면 항상 OK를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늘 응원해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우리 좋은 주님…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2018년이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차량 위원회

교인들의 협조로 맺은 큰 열매

송동률 장로



할렐루야~

2018년 차량위원회는 차량 운송, 파킹 안내, 셔틀, 차량 관리 4개 부서에서 45명의 봉사자들이 교인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좁은 파킹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한정된 파킹 공간으로 인해 각 예배 시간마다 수백 대의 차량이 입차와 출차를 함으로 발생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운행하는 셔틀 봉사를 통해 차편에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2017년에 마련된 '웰컴 주차장' 이용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 2018년에는 본당 주차장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진 것이 가장 큰 열매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차량위원회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맺은 결실이었기에 더욱 감사한 결실입니다.

2019년도 차량위원회 사역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새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더 파킹장이 축소됨으로 차량부의 세밀한 섬김이 예상되므로 부원 모두 뜻을 합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금과 같이 성도님의 협조와 차량위원회의 최선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차량부는 교회와 웰컴 주차장에 더 많은 차량을 지원하여 웰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글을 통해 퀸장 성도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량 안내부의 지시에 묵묵히 따라 주신 성도님들 한 분한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교 위원회

자발적 현신과 적극적인 참여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가는 선교 위원회



정해성 집사

선교위원회는 '섬기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선교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선교위원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현신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들이 모두 의미 있는 선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동참의 한 방법은 바자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성취해 가는 성전 건축과 선교 지원을 위한 바자를 준비하고 동참하여 하나님의 군대 같은 교회,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의 선교 바자와 건축 바자가 그 어느 해보다도 잔치집 같은 한 해였습니다. '행복하고 맛있는 토요일'을 만들기 위해 각 선교 회는 더욱 '맛'지고 '맛'진 바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민족 공동체

답게 메뉴는 더 다양해졌고, 음식은 더 맛있고, 양은 더 푸짐해졌습니다. 교회 입구와 로비에 방문자들을 위한 바자 안내 배너를 게시하고, 바자 안내서를 제작하여 초청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10월 건축 바자에서는 단일 바자로는 처음, 10만불이 넘는 수익을 올려 새 성전 건축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선교위원회는 매달 한번씩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각 선교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 다민족 예수 공동체인 콘즈장로교회의 '동력'과 같은 기관으로 한결 같은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교육 위원회

차세대 비전의 결실

정성호 장로

장년 성경공부 위원회

'평생교육', 들어 보셨습니까?



이정훈 집사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며 받게 되는 교육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소양, 그에 더하여 직업 선택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 '평생교육'은 이미 갖추어진 각 개인의 기본 지식의 토대 위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기독교 교육도 위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영아부로부터 시작된 교회학교가 고등부를 거칠 때까지는 대부분 각 가정의 부모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의무교육'의 성격이라면, 드디어 대학부를 거쳐 청년부에 이르는, 학생 개개인의 '동기'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받게 되는 기독교 교육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각 개인의 '자발적 동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어떠한 분인지, 그 분의 생각이 어떠하시고, 그 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일수록 그 궁금함이 더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퀸장바이블칼리지(QBC)'가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등 떠밀지 않아도, 굳이 조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궁금했던 하나님의 모습, 말씀, 또한 계획을 배우고자 시작된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배우는 자리이기에, 아무도 등 떠밀지 않기에 오히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게으름에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한 두 번 계을 렸다고, 또한 나와의 싸움에 몇 번 패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긴 마라톤과 같은 배움의 길, '평생교육'의 길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한 것이기에, 나와의 싸움을 이기고 끝 낸 것이기에 그 끝은 더욱 보람 있는 열매가 있는 그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 차례의 학기 동안 여러 상황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신 담임 목사님 이하 각 클래스의 강사님들, 변함없이 섬겨주신 각 과대표 및 임원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기고 완주를 눈 앞에 두신 모든 수강생들, 또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올해에는 통산 전적으로 승리보다 패배가 많았기에 중도 포기하셨던 분들(그러나, 이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승리하실 것을 알고 믿으며 미리 응원합니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가 내, 외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역자, 부서장,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러 사역에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 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그 분의 세밀한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바짝 군기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QBC 수강생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2018 성례주일 예배 스케치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편집부

찬 바람과 함께 가을이 깊어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감사의 달 11월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예식을 거행하게 된다.

바로 세례와 성찬예식이며, 11월 18일 주일을 성례주일로 지켰다. 이 날 1,2,3,4부 예배 때에는 모든 세례, 입교 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오후예배는 성례 예배로 드렸다.

담임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성호 장로의 기도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생명의 양식’이 성도들의 마음에 울려퍼진 후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물 세례, 성령 세례’(마3:11)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며, 세례에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물속에 들어가는(혹은 물을 뿌리는) 예식과 같이 내가(옛사람)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물세례를 받은 자는 또한 불세례를 받아야 하며, 불세례 받은 자는 그 불속에서 더러운 것이 제거되었으므로 깨끗하며 성령 안에서 뜨겁게 일하게 된다. 곧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며 살게 되는데, 오늘 세례, 입교 받은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귀한 알곡신자들이 되기 바란다는 복된 말씀이었다.



이어서 세례식이 거행되었는데 학습자- 18명, 유아세례자- 11명, 입교자- 7명, 세례자- 22명으로 총 58명이 이 예식에 동참했으며, 새로 세례받고 입교한 교우들의 감격스러운 첫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찬송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부른 후 목사님의 축도로 은혜롭고 감사가 넘친 성례예배를 모두 마쳤다. 세례받고 입교한 교우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온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2018년 가을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자 명단

학습: 김학재 이규대 황철석 최용 김경민 彭金
林秀娟 刘宏康 周甜 陈雁清 李妍 张新超然
江万金 郑瑜 刘羽 刘灵莎 李倩惠 郑建龙
(18명)

유아세례: 채권호 이주희 배하영 이다솜 이예준
채요한 채한별 김유민 박승원
Alina ZhengIsrael Noah(11명)

입교: 최경란 이민규 김노아 이소은 김준열
김호중 김민중(7명)

세례: 김청옥 이명희 최호 김은혜 류미 최예진
양은봉 李忠国 陈小明 陈明建 游佳敏
欧方锦 郭侨娟 冯晓民 陈飞霞 钟玉文
闫冬麟 郭秀荣 潘佳敏 袁敏 王媛(총58명)

2018 성례주일 유아세례 간증

세 아이를 품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김영화 교우 가정

안녕하세요! 저는 채노아, 채요한, 채에스더 세 아이의 엄마 김영화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살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해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지만, 2018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더욱 충만했던 특별한 한해였습니다.

2018년 3월, 저와 남편은 아들 채노아, 채요한에 이어 아주 예쁜 딸 채에스더를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딸을 갖고 싶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며 기도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우리 에스더가 태어난지 8개월이 되었고, 이번 달 11월 18일 성례주일예배에서 요한이와 함께 유아세례를 받는 축복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저희 아이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컨대 저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노아, 요한, 에스더가 되어서 새 시대를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YES’로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아이, 믿음으로 준비된 아이들로 자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퀸즈 장로교회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여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자라게 하시고, 그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그리하여 우리 퀸즈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김홍덕 권사

나에게 있어서 올해는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나이 먹는 게 억울한 걸까 아님, 바빴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위로하는 걸까....

나름 이런저런 핑계를 찾아본다.

인생의 연륜이 싸일수록 감사가 더 넘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 전 기도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하 3:17-19)이 떠올랐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과연 난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 올해에도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분만이 나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심을 확신한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리고 감사로 인해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뜰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God has greatly blessed me



Senior High ANNA SONG

Over the past year, I am really thankful to God, for my family and friends. I am blessed with an amazing family. My parents always guide me through my relationship with God, support me through the problems and stresses, and always help me in times of need. My older sister always helps me with school work and listens to my troubles. And, my youngest sister always makes me smile and forget about the problems I have. In addition to my amazing family, I am really thankful for my friends. Over the year, I have made some very close friends. I really love spending time with them and can always rely on them, if I have something to talk about. I am also really thankful for the Russian Ministry's growth; that more

people get to come to church and learn about God. I love seeing people enjoy the community and praising God. I am so thankful that I joined the Russian Ministry's praise team. Every Sunday, I have the opportunity to praise God. I am immensely grateful for God's great love, which he reveals to me every day. I am grateful for his patience and forgiveness for all the mistakes I have made. Over past year God has greatly blessed me in numerous ways. I thank God for everything I have in life.

또 감사, 더 감사, 다 감사



임지홍 집사

2003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쌓여 있을 때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하여 보낸 시간 가운데 아픈 사람을 돋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처음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 유명한 뉴욕에 와서 영어와 생물학을 공부하고 간호학과를 목표로 프리메디를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학교를 지원하고 준비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나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가 내 뜻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비자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한숨과 불평 섞인 고민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기도와 예배에 더 집중하자는 와이프의 권유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보내던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아! 한의대!”란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날 뉴욕에 있는 한의대를 알아보고 바로 다음 날 찾아가 지원을 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입학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시간 반을 기차와 지하철로 다녀야했던 통학, 그리고 많은 시험들과 공부 중에 스트레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갑작스런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을 가기도 하고 바이러스성 피부병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한의대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난 아들 주영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던 날이 미드텀 기간에 레벨테스트가 있어서 잠을 아끼고 거르며 공부를 해야했지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또 피곤함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학기까지 공부를 하던 중 또 다시 저에게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과연 내가 라이센스를 잘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자리는 있을까? 아이는 잘 키울 수 있을만한 경제적보탬이 될 만한 일자리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수 많은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계획은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 보자였습니다. 그렇게 라이센스를 받고 일자리를 알아보며 지내던 어느 날 학교수업을 같이 들으며 공부했던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자리를 소개 시켜주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받고 소개받은 분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바로 일을 시작 할 수 있다며 일사천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얼떨떨한 가운데 있지만 한가지 확신이 든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란 것 이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나와 매순간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감사의 달과 추수감사절을 통해 또 한번 더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또 감사 더 감사 다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I can call God My father



Junior High ANNA SHIM

During the season of thanksgiving, I give thanks to the Lord for everything that He is given me.

I am thankful for this life, with which I can give thanks to the Lord for knowing him. I am also thankful for my family for taking care of me and making me the person I am today. Most importantly, I am thankful that I can call God my father, through whom came all things that exist. He is the Creator who is worthy of all praise. FRESH is a dance team that I joined, and with this dance team I am able to bring praise to the Lord. With this dance team and my friends at church, I am learning to love the Lord more and more. Thank you God for showing me through these people tha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노력이 기쁨으로 돌아온 순간



초등부 강이율

2018년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에 이번 해를 돌아보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좋았던 기억과 힘든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14일에 있었던 첫번째 G2G 찬양 발표회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함께 노력하면서 연습했던 우리 멤버들과 항상 기도하시며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 함께한 발표회라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으로 드린 찬양을 모두 다 은혜롭게 들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비록 함께했던 형들과 누나들이 졸업을 하게되어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지만, 형들과 누나들 대신 새로운 멤버가 된 동생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연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도 가끔은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합창을 연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항상 기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 시간이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아직 어리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때나 발표회 때마다 열심히 연습하는 시간들이 함께 해냈다는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이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G2G 합창단에 들어와서 찬양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송현림 집사

2018년의 한 해를 돌아보니 그때의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걱정 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 모두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제가 임신 13주차에 우버를 타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났지만, 감사하게도 하영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양가 부모님 모두 한국에 계셔서 산후조리를 남편과 둘이서 할 생각에 걱정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통사고 후 받는 치료 덕분에 산후조리를 마사지와 물리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새로 입사한 병원에서 오리엔테이션 중 부서이동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는 임산부간호사를 기쁘게 맞이해줄 곳이 없을까 봐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부서이동하는 공백기간을 주셔서 임신기간동안 잘 쉬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하신 때에 더 좋은 부서도 허락해 주셔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 그릇 행하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면 걱정부터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선하시고 완벽한 때에 아름답고 감사하게 이뤄 주셨고, 우리를 우리 자신 보다 더 세밀하게 돌봐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허물 많은 제 모습에 낯 뜨거울 일들이 참 많은 저를 위해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던 그 채찍으로 올 한 해도 저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뤄 주시고 모든 순간 동행하여주심에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으로 감사와 영광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중국어 예배부 / 中文堂

온 가족 성경읽기

明建弟兄/Chen Ming Jian

以前没有读经的习惯，觉得每天带孩子已经很忙很累了，很难抽时间安静下来读经，后来慢慢觉得即使每天忙忙碌碌生活也还是一团乱。比如还是不知道如何管教孩子，很多时候还是凭血气行事。想要回到神面前依靠神，把孩子交托在神手中，所以祷告求神赐予我们一颗渴慕主话语的心，让神的话语给我们方向加添我们力量，让我们每天坚持读经祷告寻求神。然后自己先开始有秩序的读经，因着更认识真理明白真理也慢慢的学会控制情绪和脾气，后来也鼓励女儿一起读经，现在我们晚上会一起读经祷告。

예전에는 성경읽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빠서 조용히 앉아 성경읽을 시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루하루의 생활이 바쁘기만하고 영망진창이였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하는지도 몰랐고, 혈기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서 점차 자기 기분을 억제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애도 성경읽기에 함께 하도록했는데, 지금은 저녁이면 가족끼리 모여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중국어 예배부 / 中文堂

축복의 통로가 될 자녀임신

崔庆彬 弟兄/Cui Qing Bin

2017年11月2号, 我们一家登陆纽约, 那时我已经31岁半了。长久企盼的梦, 也终于迈出了坚实的第一步。

接下来我计划要另一个孩子, 这不容易。我们的第一个孩子以诺来得很艰难, 而这个难, 主要是太太赵蓓承担。如果是在国内, 我们不会要第二个小孩: 痛苦的生产经历, 沉重的抚养压力与恶劣的生长环境使我们望而却步。然而我们到了美国, 这个小孩的天堂, 在我的持续游说下, 太太改变了她的看法。最初我们的希望是能够为老二提供最好的环境与机遇, 这是个很功利的愿望。但是今年5月, 当得知太太怀孕的消息时, 我们的想法变了。我们希望能够为老二也为以诺提供最好的属灵的生长环境: 在神的爱中成长, 在充满了爱的教会中长大, 成为见证神荣耀的人, 为神所使用的人。而未来他们的职业前程并不重要---没有什么比在神的爱中度过一生更加受祝福的事了。所以, 我们给她取名叫以琳, 《出埃及记》中“有十二股水泉, 七十棵棕树”的地方, 愿她成为一个神祝福的管道, 给她身边的人带来神的救恩与爱。感谢我的太太, 感谢我们的救主耶稣基督。

2017년 11월 2일, 제 나이 31살반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미국 뉴욕땅을 밟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했던 꿈을 향해 한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다음 저의 계획은 아이 한명을 더 갖는 것이였는데 이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삭을 너무 힘들게 낳았는데 이 어려움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이였습니다. 물론 중국에 있었으면 저희도 둘째를 낳을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산의 고통과 어깨를 누르는 부양비, 열악한 성장환경때문에 뒷걸음질 쳤을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천국인 미국에 있습니다. 저의 설득에 마침내 아내도 동의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둘째에게 더 좋은 환경과 기회를 줄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의 생각이 바뀌였습니다. 저희부부는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장래에 아이들이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며 축복받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둘째에게 엘림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 곳, 둘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와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8기 제자훈련 수료예배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참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외치며 제자훈련에 참여한 10명의 제 8기 제자훈련생들이 수료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14주간 훈련받으며 성경 1독과 성경암송, 기도생활, 큐티생활과 영성일기를 나누며 참 제자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맺은 결실들이 앞으로의 삶의 모습에서 더 큰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2구절의 성경을 암송하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으로 수료생들과 리더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 제자 삼는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수료생 간증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삶

송미진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제 8기 제자훈련생 송미진 집사입니다. 어느새 1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수료예배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 시작은 ‘그저 해야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힘겹게 시간을 내어 제자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시간부터 제가 큰 마음 먹고 힘겹게 낸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선심 쓰듯 드리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전부, 내 시간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함을 알게 되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이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중심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매주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저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뿌리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주어진 과제를 통해 나쁜 습관과 헛된 시간들을 줄이고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집중하였고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며 실천하기 위해 새벽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50%밖에 안되는 새벽예배이지만 조금씩 저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4주동안 처음으로 성경 1독을 하게 되었고 영성일기와 QT는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저의 훈련에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매주 훈련 가운데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성령충만한 삶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며 사역과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기에 앞으로도 매일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팔을 잡아 세워주시고 제자훈련을 통해 보여주신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말씀을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겸손히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영적 성장을 위해 목요일마다 어머님을 보살피고 아이들을 챙기고 늦은 시간 데리러 와준 남편에게 고맙고 감사하며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열정을 쏟으시며 애써주신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홍승룡 장로님, 그리고 저의 리더 홍한나 권사님 외에 많은 스텝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 이제까지 내 뜻대로 걸어왔던 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걸어갈 주님의 길을 보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의 건강지켜주시고
부족한 제가 선교회 회장으로 설기게 하시을 감사
-신기만 회장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최정우 회장호 감사

우리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주신에 감사합니다!
-George

비록 어려가 아프지만 그로인해
기도하는 제 모습을 봄기쁨에
감사하며 주께서 늘 함께 침을
느끼게 해주시기도 감사합니다.
-정인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성화

좋은 교회, 영아부, 교포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기별 가정

I thank God for giving me a
wonderful life
-김예은

하나님 안에 살려 걸을걸을 인도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을 감사드립니다
-이소영 전도사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로 힘든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방대희 권사

머리가 자라서 예쁜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

Wish Party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신에 감사

갓즈윌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배반하는 말을 이겨낼 힘을
주시니 감사

2018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시셔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은혜와 지혜를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이정근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시셔 감사합니다
-재현

I'm thankful for my life, family & friends,
yummy food, fun, talent for violin, heaven,
school, my lovely pet fish, the earth
-Aerie Lim

Thank you Lord "Thousand times as
many as you are and bless me as you
have promised me"
-Pastor John son

I'm thankful for all of
the blessings that God has
provided me this year
-Jessica

Thank you for my faith in God,
family, church and my job
Thank you Lord for guiding me and
providing me everything
Thankful for breathing
Thank you for having such loving
supportive parents
-Chris Lee

예전이 아픈 곳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서 흔적 울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주시셔 감사드려요

感谢所有我爱的人健康快乐，平安无事 2018年发生的所有好事与坏事。

-健

심자가 사랑 감사

여호와의 성전에 날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해워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시을 감사

순간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 감사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신에 감사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 이를 열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

I am thankful for having a happy healthy family

-J.S

선교의 생명을 주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6:20)

장학위원회 주최로 "Sports Star" 장학행사가 11/10(토) 8:30—12:30 교회 체육관과 친교실 두 곳에서 있었다. 올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령의 전인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 암송과 더불어 기초체력, 기본 운동 능력을 겨루었다. 초, 중, 고, 청년부 총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먼저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

초, 중, 고, 청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으며, 참가자 모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한 감동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한순간을 꼭!! 참으며 내던 그 한결음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한 도전 또한 한결음 더 나가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린다. 모두가 최고의 경주가였다.
"다음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장학기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자녀를 통해 주신 또 하나님의 감사



임경순 집사

저희 가정에 종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장학위원회 주최로 있었던 스포츠스타에 참여하여, 즐겁게 친구들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중등부 남자 아이들 참가자 중에서 일 등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영아부부터 지금의 중등부에 올라가는 동안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스포츠를 통한 행사에서 참여하여, 종수가 건강한 몸으로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우리 종수가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서, 이 세상에 나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밝은 빛으로 살아 나가길 기도합니다. 의미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I am thankful to get an opportunity"

Junior High Sophia Kim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this year's Sports Stars has overwhelmed me with gratefulness towards the people who had worked hard to support this event.

I am thankful to get an opportunity to be involved and winning the scholarship for the placement of second place! Even though some of the plays were difficult, participants worked hard to win.

I thought the events of the Sports Stars had outdone me. I enjoyed being able to compete with my fellow peers and the people around me. I had a lot of fun while doing the activities. I am grateful for the scholarship that the church had presented me. I am willing to use to help with my studies in the future. The thought of being able to play in the body that God had given me, has filled me with feelings of gratitude.

Overall, I feel that my first year of the Sports Stars had contented me, and I am looking forward to next year's. Although I had some muscle pains, I still had a lot of fun. I thank those who had come together to continue the Sports Stars this year.

All for His Glory

Senior High Andrew So



This past Summer, I was diagnosed with an illness called ITP. ITP is a condition where the levels of white blood cell count is unusually low, and causes easy or excessive bruising. This condition has been going on for approximately a month.

Due to this health issue, I was behind on my assignments for school and had a hard time focusing.

My family and I prayed to God for his mercy and grace, for healing. He answered a month later, slowly progressing my health for the better, to the point where I found myself getting back on my feet.

I thank God though, because I could still be in the hospital, moaning and crying, but I think of this as a second chance. The improvement of my health led me to be able to continue my path as an athlete.

The sport that I devoted my high school years was for gymnastics. Gymnastics is special to me because it helps me to stay healthy and focused on what is important of, "Why I am doing all of this. All for His Glory".

It took a while to catch up with my teammates. However, through prayers and support, I am extremely gracious for this opportunity to receive the sports scholarship. Not only will it help me move further on with my education, this shows me hope that God is with me every step of the way.

God provided me with healing when I needed it the most and I will never be able to forget this chapter of my life. Thank you and I give all this Glory to God.

Let's Try!

Junior Noah Lattimore



I thought that the sports star was fun, exciting and also athletic. When I registered the sports star for jump rope I could not even do it for 5 seconds!

And I also learned that practice actually makes you almost perfect!

When I did push-ups and sit-ups and my neck was burning. I thank God for giving me a good chance and Thank you for giving me a healthy body. Next year I'm going to try again. I hope its art!

Victory Through Surrender

QPEM Sung Eun Sul



I'm very grateful to be a part of a church that hosts various scholarship events, such as "Sports Star," to help us recognize our God-given talents and further glorify Him. To be honest, I was challenged and stretched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hroughout this event. Even with my athletic experiences on the high school track team, this scholarship opportunity did not seem any less burdensome. However, I recall the drive, motivation, and intense training that helped me overcome and triumph the track competitions. In reality, the hardest aspect of running races is the discipline of practice leading up to them. Correspondingly, the hardest part of following Jesus is the daily surrendering of our flesh and desires. Only Jesus lived a perfect life and defeated sin, so that we may be justified and find victory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we are called to surrender so that He will work freely through us. I was reminded that it is a lifelong journey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Not only was "Sports Star" an amazing opportunity for financial aid, but also a necessary reminder that we're able to preserve because God has given us the power to through Jesus Christ. I give thanks to God, who provides in glorious ways to remind us of His love.

2018 Sports Star Scholarship 시상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1등 Ethan Choi, Kristy Kim	1등 Ian Lim, Kayles Park	2등 Andrew So, Maria Kim	3등 정경래, 김정은
2등 Connor Choi, Parks Oh	2등 Joshua Chang, Ariana Chang	3등 Juyoung Yang, Helen Klein	4등 국가현, 김은지
3등 Eileen Kang, Rachel Kim	3등 Sophia Kim	4등 Sri-Fang Qi, Athena Choi	5등 양민성, 조진우
4등 Kyle Choi			

* 중등부 미자 등급 미정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

편집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세어보며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교육부의 여러가지 감사절 행사를 통해서 열린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Tian Guo 선생님 郭甜老师

중국어 교육부 유열부 아이들이 추수감사 주일예배에서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 찬양을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열심히 아이들을 격려하며 가르쳤다.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많도다….” 강대상 앞에 순서대로 줄을 서는 아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주님의 사랑을 담아가는 모습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모든 선생님들은 옆에 무릎꿇고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경배 찬양을 올려 드렸다. 정말 멋지고, 감사하는 시간이였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 드린다.

感谢主，感恩节的主日崇拜，中文堂教育部的幼儿部小朋友们在大堂奉献时献诗，颂赞主的恩典。经过一个多星期的练习准备，老师们和家长们尽心的鼓励教唱，虽然是幼儿孩童，但是，在高声颂赞主的恩典“耶稣爱我，我知道，因有圣经告诉我，所有小孩主牧养，我岁弱小，主刚强...”中没有一丝的退缩。每个小朋友非常顺服地排好位置，站在台前。他们的可爱，纯真，爱主的模样，深深地感动着我。所有的老师们在旁边蹲下来和小朋友们一起完成了这次敬拜赞美。非常的棒，非常感恩。一切荣耀赞美都归于我们的耶稣基督。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Meijia Dai 선생님 戴美佳老师

우리 중국어 교육부가 점점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1월25일, 추수감사 주일예배에서 우리 얼통부 아이들은 처음으로《give thanks》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갑짜기 음향에 문제가 있었지만, 배경음악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감사찬양을 올려 드렸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우리 얼통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였으리라 믿는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할렐루야!

感谢神，让我们中文堂的教育部日益兴旺起来。在11/25/2018这个感恩节的主日崇拜里，我们儿童部的孩子们第一次在中文堂的崇拜中，一同献唱《give thanks》这首诗歌来感谢我们的神。虽然当时的音响临时出现了一些问题，但是感谢神，我们的孩子们在没有背景音乐的情况下，依旧非常棒地清唱了这首诗歌献给我们的神。因着神丰盛的恩典，使得我们的不完美都变为完美。相信我们儿童部的孩子们都领受到了我们天父的恩典和慈爱。感谢主，将一切的荣耀赞美都献给我们的神！阿利路亚！感谢赞美主！



하나님 감사해요!

유아부 이영경 교사

오늘은(11월 25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어린이들이 저마다 고사리같은 손에 과일을 들고 왔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1년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같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 과일을 가지고 왔네요.

감사의 과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에 풍성한 과일 바구니 앞에서 사진도 찰칵 찍었어요. 유아부 친구들이 가장 신났던 일은 교회 lobby로 내려가 감사제목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되새기며 사진을 찍은 일이에요.

과일 바구니에 여러가지 과일을 붙이며 1년동안 하나님의 은혜속에 기쁨의 유아부가 될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어요. 유아부 친구들이 만든 감사 바구니를 보며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초등부 김유진 교사

매년 이맘때쯤 느끼는 추수감사절의 따뜻한 기분은 우리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되돌아보며 포도송이를 감사제목들로 채우기도 하고, 각자 정성스레 준비해온 과일들로 바구니를 만들어 교회 어른들께 선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Who is this pastor? What does he do?” 질문하며 교역자 분들에 대해 배우고, 감사의 마음을 한글자 한글자 카드에 담아 전달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것이 교사로 섬기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이기에 초등부를 인하여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해 섬겨주시던 부목사님들이 떠나시는 아쉬운 소식에도 사실 세어보면 감사할 것이 더욱 많아 모든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봅니다!



감사절 사행시

영아부

손계인(노엘 엄마)

나 나의 구주되신 주님
의 의로우신 주님
감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시니
사 사랑과 경배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감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신
사 사랑의 하나님
충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만 만유의 주여 영광 맏아주옵소서

임세현(주영엄마)

나 나는
의 의로운 사람도 아니지만
감 감사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 사랑해요

평 평화의 예수님을
생 생각하면
감 감동이 넘쳐
사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사 사랑하는 주영이와 우리 가족이면
충 충분합니다
만 만족합니다

제 57기 전도폭발 수료예배 간증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폭발



제 57기 수료를 맞는 전도폭발 수료예배의 자리에는 한, 중, 영어훈련생 23명과 준훈련자와 훈련자 28명에 기도후원자까지 함께 하여 본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별히 57기 전도폭발 훈련은 “Just EE”를 사용하여 20분으로 단축된 복음제시로 복음의 핵심요소를 빠르게 전할 수 있는 효율성이 더해졌으며 12주간의 현장전도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개강하는 불학기에는 “Just EE” 훈련과 “Just EE” 2단계 훈련이 추가되며 제 71차 전도폭발 미주 한인지도자 임상훈련이 2019년 9월 23~26일 (월~목)에 본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3일동안 훈련자를 위한 민박, 음식, 교통등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전도폭발 훈련 동문들과 교수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영적전쟁의 최후 승리



손정호 집사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할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주일 친교실 입구에 있었던 훈련생 모집 데스크를 지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나...

진실로 내가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진 자인지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전도대상자 한분 중에 기독교를 믿다가 결혼 후 아내의 영향으로 40년가까이 불교를 가까이 하며 동부지역에 있는 절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는데, 복음을 듣고는 정말로 열심으로 불교를 믿었던 아내 분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참석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단의 방해는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주일 교회 문앞에 왔다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게 하며 주일예배까지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업날에는 아프거나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한꺼번에 절반의 훈련생이 참석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단의 방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맹렬했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켜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모집되는 전도폭발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최후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꾼 나의 삶



QPEM Neva 청년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면서 전도의 기술을 배우게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제게 큰 울림이 되었던 벌립보서 1:9-11 말씀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바울은 제가 처음 훈련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지식을 더 얻는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의 훈련자였던 유진자매와 규원형제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대상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신 논쟁을 통해 그들의 논리나 이성에 호소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듯,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

음에서 우러난 현신을 쟁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한다해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현신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한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후로는 언제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대로 쓰여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한 두마디 짤막하게 나누는 대화라도 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나니 직장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챌만큼 전보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2주전쯤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제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직장에서 힘들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 분도 안되어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신호인 모양이라고, 우리는 그 주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 세번째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제 친구는 100명 중 한 사람 정도나 저렇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을까 말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시고 들으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씨를 뿌리든, 물을 주는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결국 저는 아직도 부족한 죄인이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끝났어도 하나님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있는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을 추수할 일꾼



중국어 예배부 Chen Jing Jing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얻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도폭발 사역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저도 많은 사람들처럼 전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하여 저는 복

몇주가 지나고 현장전도를 해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음제시를 위해 복음을 암기하며 연습해야 했는데, 복음을 암기할수록 죄인된 저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세상성공 바라보며 술에 무릎 꿇고 길바닥에 엎드렸던 인생... 죄의 길로 가다가 죄 때문에 죽었을 인생... 살아 있어도 죽음과도 같은 생활을 알지 못하던 저에게 빛을 주셨던 주님... 이 큰 은혜를 잊고 머리로만 구원을 확신하며 나의 모든 문제와 처지

음 전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전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고전9:16-17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것이 없음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한 그 시각부터 복음전파는 이미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전도대상자가 이해하고 믿고 회개하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자매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했는데 뉴10: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려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추수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복음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다섯가지 연관된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폭발훈련에 참가한 제일 큰 이유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일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한번 또 한번 전도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두가지 진단질문 “만일 오늘밤이라도 이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을때, 저는 더이상 아빠에게 복음 전하는것을 지체할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어떤날은 한밤중에 놀라 깨어 아빠가 아직도 주님을 믿지않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저희 아빠와 믿지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의 아빠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기회가 오고 주님의 일을 완성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저는 영적전쟁의 진실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대 사명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로



최성호 집사

훈련을 계획하시고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훈련을 준비하는데 이끌어주신 교회와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도폭발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매주 준비하시는 훈련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약사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질까? 묘비에는 무엇이라 내 삶이 한마디로 기록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가족과 나를 기억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그래도 최성호집사는 잘 살다 갔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안에 있는 열심은 그저 좀더 성공하는 것이고 좀더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주검앞에 울려퍼지는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의 말씀도 그저 나 혼자의 신앙,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기적인 벙어리 신앙인,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입이 있으나 복음과 전도는 늘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폭발이라고 하면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폭발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보통훈련은 아닐 것 같은, 훈련도 하기전에 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저 또한 전도폭발훈련 생 모집광고가 올라오면 전도폭발관계자 분들과는 늘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최대한 나중에 하리라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지 깨닫는 것은 불과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젊은시절 비슷한 훈련을 여러번 해봤다는 자만과 교만 그것이 나를 배부른 안수집사,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게으른 최집사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제시의 단계를 밟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지 먼저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기쁨과 전도가 일년에 한명도 없는게 말이 되는지, 자만하고 교만한 나의 전도지식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선물로 주실수 밖에 없는 영생과 주님을 보낼수 밖에 없는 하나님을 하나 하나 배우고 암기하며 가슴이 먹먹하고 내가 뭐하고 살아왔나 눈을 감고 눈물을 머금으며 회개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 어색하고 경계하던 그들의 눈빛이 평화로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확신과 기쁨, 이제는 안심되어 진다는 안도감, 엄마에게 동생에게 친구에게 처음듣는 이 놀라운 신기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절박함등이 성경에서 듣던 바로 그 현장이었으며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리시는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땅에 다 채워지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바로 사탄의 세력들은 전도현장에도 항상 준비하고 있었으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변의 상황들을 이용하여 방해하고 스스로 지치게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결단한 이 마음과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포기 않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미혹의 영인 사탄아! 지옥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데려가려는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부족한 저에게 부족함을 더 알게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시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디어 전도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버려야 한다는 주일날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편안한 것, 나의 만족과 나의 드러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둘곳 없이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명자,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년부 주기도문 암송대회

개구장이 예성이의 주기도문 외우기



박한나 교우 (유년부 박예성 어머니)

이제 다섯살이 조금 넘은 예성이는 에너지 충만, 까불이 개구장이입니다. 어렸을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것을 좋아해서, 유치부에서 배운 주기도문송은 동생에게 울동까지 가르쳐 주며 잘~ 외웠습니다. 가사의 뜻까지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외울수 있는 것에 감사 & 위안하고 있었는데… 올해 키더 입학으로 올라가게된 유년부에서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년부에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영어로 외워야한다니, 엄마도 부담, 아이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글을 읽을줄 모르는 아이에게 어려운 고어가 섞여있는 기도문을 한 줄 한줄 뜻 설명해가며, 외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You’ 를 ‘Thy’ 라고 해야하는지…자기의 ‘Debtors’ (죄자은자)가 누군지…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의 ‘But’ 을 굳이 영성이를 가르키며 강조하면서 외우는 엉뚱함까지!

예수님이 가르켜 주신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누누히 얘기하며, 제대로 외워야 한다고 잔소리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을 그렇게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외우던 기도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한 구절씩 뜻을 새겨가며 내가 하는 어떤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를 드릴수 있어 제가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암송대회 주일날, 교회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연습하던 예성이는 잘 외워서 트로피를 받았다고 기분이 한껏 좋아져있었습니다. 엄마로써 대견하기도 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기도의 기초를 쌓게되어 감사합니다.

개구장이 아들은 오늘도 엄마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며 까불거립니다. 그래도 입으로는 주기도문송을 흥얼거리는 모습이 열반으면서도 귀엽습니다. 아이의 흥얼거리는 기도송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들

이길함 선교사

최성은 집사

길선주 목사에게 세례를 주고 장대현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평양대부흥의 발흥자이며 그 부흥의 불길을 근교에 옮긴 교육자며 전도자

12월 2일은 이길함(본명 Graham Lee, 1861~1916) 선교사가 별세한 날이다. 1892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이길함 선교사는 1912년까지 한국에 머물며 엄청난 민족적 수난을 겪고 있던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선교사였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1861년에 출생한 그는 시카고 맥코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1892년 10월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해 1893년 1월 관서지방 개척 선교사로 임명되어 2월에 평양을 방문하였으나 형편상 서울로 다시 돌아와 연동교회설립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1895년부터 다시 관서지방 개척선교에 착수하여 복음의 불모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01년부터는 평양장로회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1907년 1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평양 사경회” 때 설교와 기도회 인도를 통해 평양대부흥 운동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1912년에 미국으로 귀국하였고 4년 후, 1916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길로이(Gilroy)에서 숨을 거두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발흥의 주인공

이길함 선교사는 장대현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평양대부흥의 한복판에 섰던 사람이었고 또한 본 연재의 첫 주역으로 다루어졌던 길선주 목사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기도 하다. 1897년 8월 15일, 이길함 선교사는 길선주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후 길선주는 조사(助事)와 장로로서 섬기다가 평양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 중 한 사람이 되었다.

1906년은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주권이 상실되고 일본이 전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다. 그 때 오랫동안 친구관계로 생각해왔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지배를 서둘러 승인하자 국내에서는 반미 폭풍이 온나라를 휩쓸었다. 이때 평양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지가 정치적인 상황의 급변으로 위기를 맞은 심각성을 깨닫고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이미 원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중심 도구로 쓰임 받은 하디 선교사를 초청하여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함께 평양선교사 사경회를 가졌다. 요한 1서를 강해한 하디의 이 사경회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길함 선교사는 장대현 교회로 돌아와 평양교회제직을 회집하여 일주일간 매일밤 요한 1서를 가르쳤고 그러던 중 제직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길함 선교사를 통해 기왕의 영적 각성이 성숙한 평양 교회 교인들에게 더욱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1906년 10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회 정기 모임을 결들인 집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는 길선주를 비롯한 평양 시내 한국인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모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주강사는 웨일즈와 인도 선교지를 거쳐 한국에 온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위원이자

부흥사인 하워드 존스톤(Howard Agnew Johnston) 목사였다. 이 집회에 참석한 장대현 교회 장로 길선주는 마치 그를 통해 다가온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예비라도 하듯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리고는 평양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것이다.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저녁 집회에는 1,500명 가량의 사람이 모였고 이길함 선교사가 설교를 하며 집회를 인도했다. 이 날 회중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 잡혀 죄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길함 선교사가 기도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자마자 어떤 외부적인 힘이 회중을 사로 잡았다. 각 사람들이 각자



일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고, 어떤 이들은 죄책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주먹을 움켜쥐고 머리를 땅에 짚기도 하였다.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죄의 고백이 지속되었다. 선교사들은 이들의 엄청난 죄의 고백을 들으며, 성령의 권능적 강림에 놀랐다고 한다. 이길함은 “통회의 울부짖음은 설움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어 넘쳐 흐르는 찬양의 물결과 같았다.”라고 보고했다.

헌신된 교육자

이길함 선교사는 교육사업에 헌신된 자이기도 했다. 1897년, 그의 집(평양 신양리 26번지)에 소학교가 세워졌는데, 이는 후에 평양 송의여학교로 발전했다. 1901년 봄, 평양신학교가 개교했을 때 그는 교회역사와 신구약주해, 성례와 교회정치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교수 2명과 학생 2명이 마포삼열 선교사의 집에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차재명, 창문사, 1928)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복음 선교할 교역자 양서의 필요를 감(感)하고 1901년에 목사 후보자 2인을 선택하여 성경문답으로 시취한 후 5년제로 과목을 작성하여 선교사 마포삼열, 이길함 양씨가 분담교수하게 하고……1902년에 제1회로 김종섭, 방기창 2인에게 교수한다.”

어려움에 시들지 않는 전도자

마지막으로, 이길함 선교사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전도자였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그는 겨울 사경회를 지원하기 위해 평양에서 강계까지 여행을 감행한다. 320km가 넘는 긴 거리와, 영하 20도의



혹독한 날씨도 이 전도자의 발을 막을 수 없었다. 썰매와 가마, 도보로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언덕배기 시골길을 통과하는 어려운 전도 여행중에도 그의 유머감각은 시들지 않았다고 한다.

1907년 1월 평양대부흥운동의 발흥의 주역 이길함 선교사는 평양 부흥의 불씨를 그 해 2월 선천과 의주로 옮겼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길함 선교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1,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린 선천과 의주의 겨울 사경회 저녁 집회 동안에 임했다. 1907년 북장로교 선천 선교부는 그 선천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북장로교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7).

“비록 충분한 설명을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올해 경험한 영적 각성, 너무도 깊이 교회와 선교부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는 교회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2월 이길함 선교사의 선천 선교부 방문에 그 영예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때 부흥운동의 출구가 열리고, 교회가 몇 개월 동안 기도해 왔던 바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고통과 어려움은 결코 잊혀질 수 없을 것이지만, 교회가 죄의 고백으로 순결해졌으며, 죄의 통회로 힘을 얻었으며, 사랑의 영의 지배로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권능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흔들리는 여인들에게 도덕과 순결의 삶을 가져다 주었다. 선천과 의주의 겨울 사경회 기간 동안 집회가 남녀를 위해 매일 열렸고 늦은 밤까지 죄의 고백이 계속되었다.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혔고 도둑맞은 돈이 되돌아왔으며,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손들의 신앙생활이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중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기도했다.”

선천과 의주에서의 겨울 사경회 기간 동안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평양대부흥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개를 동반한 영적 각성운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양대부흥의 성령의 불길을 그대로 그곳으로 가지고 간 이길함 선교사의 영향이 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낯아지심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 서울에서 평양, 평양에서 강계까지 오가며 복음을 전한 이 이길함 선교사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이 추운 겨울에 더욱 감동을 준다.

평양사경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또 한명은 이길함 선교사였다.

평양장로회의 담임목사이기도 한
이길한 선교사는 교회로 돌아가 사경회를 연다.

철저하게 통회하는 길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1907년 1월에 열릴 겨울 사경회를 위해
간절히기도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을 먼저 영적으로 무장시켰던 평양사경회,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

크리스마스 찬양제를 준비하며

성탄절 팡파르



임마누엘찬양대 최진식 전도사

임마누엘찬양대가 드리는 이번 성탄절 찬양곡은 '만왕의 왕이 오셨다'와 '성탄절 팡파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심을 모든 천사들과 목자들이 기뻐 찬양하며 외치는 찬양곡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서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주일 가장 일찍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연령도 가장 높은 찬양대이지만 기도로 무장하여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낮은 말구유에서,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거룩하시며 영광 받을 영광의 왕 구세주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기쁘게 외쳐 전 할 소식은 만왕의 왕 구세주가 오셨다. 그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고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천군 천사가 모두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은 만왕의 왕이 오셨다.

"성탄절 팡파르"

천사들이 외친니다 기뻐 찬양 알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다.
기쁜 노래 온 땅 가득 하며
기쁜 노래 하늘 채우네
기쁜 노래 마음에 가득하니 목소리 높여 기쁘게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시며 영광 받을 왕이시며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구주시니
크고 작은 나라들이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SING! NOEL



호산나찬양대 최경희 집사

저는 2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하는 최경희 집사입니다. 부족한 제가 벌써 퀸장의 찬양대를 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제게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7년이었습니다. 첫해에 권사합창단이 창단되어 초대 지휘를 맡는 것을 시작으로 1부 임마누엘, 4부 할렐루야, 이제 2부 호산나찬양대에서 지휘 첫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각부 예배마다 조금씩 다른 예배 순서를 비롯해 본문말씀에 맞는 찬양선곡, 절기예배에 맞는 선곡, 찬양대원들의 연령에 맞는 선곡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의 마음을(감히)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전체순서를 보면 찬양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선포와 올겐의 중후한 입례송의 전주가 예배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예배의 마침 또한 목사님의 축도후 찬양대의 축복의 폐회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어떤 찬양곡으로 어떻게 찬양드리느냐에 따라 예배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교 전 찬양대의 찬양은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예배자들의 마음문을 열수 있어야 하며 또 설교자이신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휘자도 한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심정과 입장으로 찬양곡을 선곡하고 찬양대원들을 연습시키고 이끌어 가는 것에 기도하며 거룩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다시 노력해서 하나님 나부르실 때, 나에게 질문하실 때, 꼭 칭찬 받고싶습니다.

문득 학창시절 신실하신 믿음의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호흡은 생명유지가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학생들의 비웃음도 있었지만 저에게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난 음악을 배우려온 학생이 아니구나! 그 뒤로도 그 교수님의 강의는 많은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며 세상 음악과 찬양곡이 정리가 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시어 찬양하게 하심에 또 감사, 더 감사, 모든 것에 다 감사드리며 이번 성탄찬양 또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인사를 SING! NOEL 이라고 드렸는데 뜻은 다 아시겠지만 "노래하라(찬양하라)", "기쁨을 외쳐라" 입니다. 호산나찬양대가 준비



호산나 찬양대

하는 성탄 찬양의 제목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찬양대원들의 기도와 신실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leigh Bell (24개의 종이 달려있는 타악기), Maracas (열매 속에 씨알을 넣어 만든 타악기),

Double book (작은 두 개의 북), 다소 이름은 낯설지만 우리 귀엔 익숙한 악기들이죠.

이 타악기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퀸장의 4개의 찬양대가 서로의 특색을 살려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드려지게 될 찬양들을 기대합니다.

2000년 전 이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성탄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소명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퀸장의 찬양대로 오시길 기도합니다.



G2G (Glory to God)

아기 예수님을 전하세



시온찬양대 소유영 전도사

이번 성탄 축하 찬양제에 시온찬양대가 맡은 주제는 '아기 예수님을 전하세'라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 세상의 빛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어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 자체가 곧 전도이며, 특별히 이 후려상, 뉴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세상에 인간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크게 외쳐 세상에 알려야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을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수 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 전하기 원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우리 성탄 축하 찬양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낮춰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사9:6). 둘째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사53:1-6,11,12). 세번째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마1:20-23).

각 찬양대마다 짧은 연습시간 때문에 지휘자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물론 찬양대원들도 열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연습했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찬양대원들은 보통 두달전, 석달전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렇게 두 세달을 준비해서 올리는 칸타타 하는 날에는 찬양대원들보다 적은 성도들이 앉아 계십니다.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들어주는 분들이 몇 명 보이지 않으면 우리 찬양대원들은 사기를 잃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을 성도들이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찬양대원들은 지난 두 세달의 고생을 그날 찬양하면서 은혜받고 박수 받는 것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얻기를 위해 열심히 찬양대를 지키며 섬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12월 16일 오후 4시 '성탄 축하 찬양제'에 모두 참석하여 같이 성탄을 기뻐하시며 찬양에 은혜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할렐루야 찬양대 강혜영 집사

라디오에서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 거리와 상점의 장식들, 라카펠러 센터의 큰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즌은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 없이 들뜨고 설레는 시간입니다. 어느 캐롤의 한 구절처럼 '일년 중 가장 멋진 때'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러나 조금 더 특별하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멋진 크리스마스 시즌의 모습은 구주로 오신 예수께 올려지는 세상의 예물이 되고 저의 설렘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구세주 탄생의 예언을 들은 이들의 벽찬 기대와 설렘으로 이번 성탄의 찬양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고등부 Chamber Orchestra



연합찬양대

왕이 오셨다 왕을 전하자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연주하는 성탄 찬양제

편집부

"왕이 나셨다, 왕을 전하자" 말씀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찬양이 퀸장의 예배당을 넘어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너도 나도 별빛의 인도를 받는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예배당에 퀸장 식구들은 아래 윗층을 가득 채우며 모여 들었다. 하루 종일 내리는 비도 그 발걸음을 막지 못했고 그 동안 준비해 온 찬양과 연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성도님들의 특별 봉헌으로 준비된 멕시코가 원산지라는 성탄절의 꽃 표인 세티아가 엘리베이터 앞에 가득하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성탄절을 준비하며 오랫동안 찬양을 연습해온 대원들의 손에 리허설과 주일 예배 그리고 연주를 위하여 포인세티아는 강단과 로비 사이를 여러번 왕래 할 것이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주일 오후는 찬양 대원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여러달을 준비해온 찬양을 오늘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다.

연합 찬양대가 전곡을 함께 연주하는 방식이 아닌 4개의 찬양대가 찬양대 별로 두곡을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G2G(Glory to God)와 고등부 오케스트라 팀이 중간 중간 연주하며 4개의 찬양대가 함께 모여 연합으로 두곡을 찬양함으로 미무리하는 방식으로 성탄 축하 찬양제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선두로 힘 있고 경쾌한 음률로 마음껏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알리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의 재롱동이들 G2G가 목

소리 높여 찬양하였다. 천사들과 목동들의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두곡이 연주되었고 곤이어 진학을 앞두고 분주한 중에도 정성껏 연습하고 준비해온 고등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여 찬양제에 흥을 더하였다.

예배하며 여러 부서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찬양대원들과 단원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마음껏 기쁨으로 올려지고 있었다. 잘 만들어진 톱니바퀴가 보기 좋게 맞추어지듯 협력하는 각 부서원들과 봉사자의 손길로 예배와 찬양의 시간들이 시작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퀸장 성도들의 잘 훈련된 섬김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기 예수가 누우신 구유 앞의 흥분된 목자들의 마음을 아는듯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은 기쁨을 더하였고, 이어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널리 전하여졌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큰 기쁨의 소식이 연합 찬양곡으로 드려질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오직 높임을 받으셨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들만의 축하의 자리를 넘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여질 것이다.

킹스콰이어 송년회
오직 한 분이신 왕을 위한
“왕의 합창단”

손정호 집사

12.9일 주일 오후, 불이 꺼진 양순관 친교실. 어둠을 밝히는 건 테이블마다 놓인 촛불이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길 잃은 자의 앞을 밝혀 주듯이 촛불이 은은하게 친교실을 밝혀 주었다. 그 빛을 의지하며 킹스콰이어 단원들이 속속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활발한 담소가 넘치던 친교실의 평소 분위기와 달리 사뭇 차분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김태선 단장의 개회 선언과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송년모임이 시작되었다.

올해 킹스콰이어는 부활절 찬양제를 시작으로 전도폭발 수료 예배(상,하반기), 전교인 여름수련회 특별찬양, 행복에의 초대 새가족 오찬, 등부신학교 찬양의 밤 찬조출연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여러 일정 속에서도 한명이라도 더 많은 단원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계획하며 연습하였고, 기도로 나아간 찬양의 자리에는 거의 모든 단원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한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마친 후 친교를 나누는 순서가 있었다. 한해 동안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과 감사한 일, 우리 가족의 사랑,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응답,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 등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일상속에 잊고 있었던,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던 것일까… 한 분, 한 분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어렵게 꺼낸 한마디는 진한 감동이 되어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담임목사님의 시작 기도에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오른다. “왕의 합창단” 킹스콰이어가 모였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땅에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왕의 왕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죄악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최후승리자, 영원한 우리 삶의 주인되신 예수님을 위해 왕의 합창단은 세상의 시간으로 볼때는 올 한해를 마무리 했지만, 우리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한 분이신 왕을 위한 “왕의 합창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블레싱 송년회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삶

차동미 권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앓아서 감사기도 드릴때 아기 잘도잔다 아기 잘도잔다....”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찬송을 함께 부르며 2018년 블레싱 합창단 연말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두가지의 삶이 있는데 사람의 축적의 삶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 중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블레싱 단원들의 삶이고 블레싱이 찬양의 자리에 나설때 마다 감동이 있으셨다”는 2019년에도 마음에 새기고 사명을 감당할 귀한 말씀을 담임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블레싱 합창단은 예수님 밟아래서 말씀듣는 마리아처럼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에 먼저 귀기울이고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드리는 마르다 처럼 교회를 위해 각 부서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단원 한분한분들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게하며 허락하신 지체들을 세워나가고 교회 방침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담임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다시 나누어봅니다.

“블레싱이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수없는 우리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올한해도 주님이 부르신 곳마다 나가 찬양으로 영광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주님의 딸 한사람 한사람 만져 주시되 주여 말씀도 들려주옵소서. 딸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라는 주님의 고백과 사랑이 그 딸들 귀에,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단원들의 삶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블레싱 되며 서로 격려가 되며 서로 위로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기도 후 단원들이 함께 준비한 맛있는 식사와 정소연집사와 정주영집사의 잘 준비된 즐거운 게임 시간으로 올한해의 블레싱 사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해동안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저희자 소유영전도사님과 반주자 이송은집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땅에 오신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블레싱 합창단을 통한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가는 갓즈월

지난 2017년 11월 주님의 뜻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열렬한 기도와 응원으로 30대 선교회 갓즈월(God's Will)이 출범하였고, 어느 덧 일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헌신적인 임원단(회장 송형규집사, 부회장 정소연집사)를 세워 주셨고, 그들의 수고로 갓즈월을 찾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 할 수 있도록 간식을 공유하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았고, 교회를 나오면 반겨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 더 이상 교회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자리마다 필요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더 해주셔서 일의 수고보다는 형제 자매의 웃음과 격려로 새 힘이 솟는 은혜도 체험하였고 각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의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30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자리 매김하게 된 갓즈월,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십자말 성경퀴즈

감	사	의	달	도	마
람			시	비	차
산	파		스		골
수	네	م	성	호	
꾼			도		세
꽃	무	리			모
감	당		어	부	조
			지	지	리

11월호 당첨자

정진양 집사
김동열 성도 (2교구)
이일향 권사
황홍례 권사
이은술 집사

당첨되신 분들께는
친교실 식권 열장씩을
전달해 드립니다.

십자말 성경퀴즈가 이번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매호마다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담아 멋진 성경퀴즈를
출제해 주신 김기호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려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1

Chinese Ministry



새가족환영회 안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새가족환영회 안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orean Ministry



Chef Jesus

Many chefs say in order to make the best food, you need to have fresh ingredients.

But there exists a true chef who makes the best food called 'gratitude,'
even with ingredients like 'the darkest and most shameful time in your life.'

很多厨师说为了做美味佳肴需要新鲜的食材。

但是，我们有真诚的厨师，他会用‘你人生当中最黑暗最羞耻的经历’作为食材，烹饪出最美的佳肴‘感恩’。

많은 요리사들이 최고의 요리를 만들려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 삶의 가장 어둡고 슬퍼스러웠던 시간’이라는 재료로도 ‘감사’라는 최고의 요리를 만드시는 진정한 쉐프가 계십니다!

